

# 피임, 낙태를 십대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미경(단국대학교 여성학 강사)

## I. 피임, 인공유산 교육의 중요성

십대들에게 피임과 인공유산 관련 교육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분야 교육의 대부분은 이들이 성장한 이후의 성과 사랑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피임법을 필요로 하고 인공유산 문제로 고민하는 십대들도 적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대부분 학생이라는 동질성을 갖는 십대들 사이에서도 성인식의 수준과 성행동 양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피임과 인공유산은 준비없이 이뤄지는 성관계의 후유증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피상적인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원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남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한 YMCA(2000)의 조사연구에서는 전체 17.9%가 실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20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2000)의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전체의 13.5%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임 실천여부는 YMCA(2000) 조사연구 결과 27.9%만이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들 중 58.1%가 질외사정이라는 불완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콘돔사용은 30.2%에 불과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8%)라기 보

다는 귀찮아서(32.2%), 사라 가는 것이 부끄러워서(17.1%), 준비를 못해서(8%)로 피임에 대한 실천 의지와 책임감의 부족을 나타냈다<sup>4)</sup>

이제 우리는 이들 십대들에게 피임과 인공유산 관련 교육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 등을 나눠야한다. 무엇보다 성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강사의 인식과 가치관, 지식, 자료 등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천차만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피임과 인공유산 관련 교육에서 십대들에게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고,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이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등을 스스로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 II. 십대들의 피임, 인공유산 현실

십대들의 피임실천률, 인공유산 실태에 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업포기, 문란한 성생활, 가출, 미혼모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다음은 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piim.or.kr>)에 올려진 피임에 관한 고교생의 상담내용이다. 이 사례는 피임교육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도덕적 잣대에 의해 일률적인 처리를 했을 경우,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함을 알 수 있게 한다.

---

4) 정연희(2001), “현장에서의 성교육 경험”, [성교육 그 쟁점과 실천], 한국여성학회 2001년 제1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8쪽에서 재인용.

[절대긴급]고교생이에여 제발좀..

고등학생입니다.. 여자친구와 호기심에 한번... 그냥 느낌이 어떨까 해서요..

지금 정말 후회 됩니다... 여자친구 생리 끝난 2일째 였구요. 질외 사정을 한다는게 질안에 조금 찔습니다. 여자친구는 괜찮을거라 했는데 자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리 끝나고 몇일간은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어떨지요? 가장 걱정되는건 여자친구가 이번생리를 10여일 밀렸다는거죠... 여자친구 말로는 보통 10일경에 하는데 10일 정도 밀려 20일 경에 하면 그 다음달에는 20일경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배란 할때는 몸에 변화가 온데요. 그래서 아는데 이번엔 안그랬데요... 그래두 자꾸 걱정이되요... 그래서 공부도 안되구요... 혹시나 임신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정말 막막합니다. 낳을수도 없고... 수능이 얼마 안남았는데... 제발좀 도와 주세요. 아직 하루 정도 밖에 안지났거든요?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이라는거라도 사서 먹여야 하는건지... 제발좀 도와주세요(2000. 8. 1).

Re: [절대긴급]고교생이에여 제발좀..

여자친구와 관계를 갖은지 72시간내에서는 응급피임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 생리예정일이 하루 지나셨다구요? 그럼 빨리 서두르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그렇다고 임신이 되지않을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자들의 생리주기라는게 일정치 않기 때문이죠. 생리 예정일이 늦어질경우도 다소 있을수 있지만, 뒷일을 위해서는 검사한번 해보는게 낫을듯 싶네요. 검사는 생리예정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가능합니다. 보통 생리가 끝나고 약 일주일 가량은 안전하다고들 합니다만, 임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순 없겠죠? 더궁금한거 있으시면 메일주세요(2000. 8. 2)

### Ⅲ. 피임과 인공유산 다시보기

#### 1. 피임의 의미

피임은 임신을 피하는 행위이며 출산의 시기, 자녀의 터울 등의 계획을 위한 의도적 결정이다. 또한 피임은 성관계시 재생산(임신, 출산)으로부터의 성의 분리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특히 자녀수의 조절로 생애주기 변화 등 여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피임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남성들은 대부분 “피임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성들은 되도록 성에 대해 무지한 것이 순결한 여성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몸에서 임신이 되고, 임신한 아이의 양육이 일차적으로 여성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이해(interest)에 맞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 무엇보다 피임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임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2. 피임방법

피임방법은 사용을 하다가 원할 때 중단을 하면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 일시적 피임방법과, 영구적인 피임방법이 있다. 각 방법마다 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점, 부작용은 다르다. 피임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는 무엇보다

다 피임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신체 생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로의 건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피임방법을 선택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일시적 피임방법은 콘돔, 폐미돔, 자궁내장치, 질정좌약, 피임약 등이 있고, 영구적 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 난관수술이 있다. 이밖에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점액관찰법이나 월경주기조절법, 질외사정법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안정성이 매우 낮아 다른 피임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 3. 피임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생각들

- 성욕은 우리가 갖는 중요한 가치의 일부이다.
- 피임행위는 옳다.
- 임신에의 불안감 없이 성관계를 즐길 권리가 있다.
- 상대방의 몸에 대한 배려와 함께 당당하게 피임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임은 성관계의 한 과정이다.

### 4. 낙태

우리사회에서 매년 태어나는 아이의 2배 이상인 150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인공유산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성교육시 예방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주제이다.

그리고 낙태문제는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임신,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그 여성이 처해있는 학교, 부모, 남자친구, 의료보건체계, 미혼모 지원의 사회복지체계 등 사회적 관계망이 낙태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여성들의 임신, 출산의 선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은 낙태와 관련한 행동수칙<sup>5)</sup>이다.

### 1) 낙태를 하지 않기 위한 수칙

- 원치 않는 성관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 성관계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피임을 준비한다.
- 성관계시 상대방이 피임을 안하면 피임은 성관계의 한 과정이며, 서로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 연애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다면, 콘돔이나 좌약을 늘 준비한다.
- 일상생활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 2)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

- 예정된 시기에 생리를 하지 않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는다. 이때 가능하면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친구, 선배들에게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다.
- 임신 진단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낙태할 것인지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낙태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받게될 후유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 상대방 남성도 낙태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그 책임을 함께 나눈다.
-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애써 회피하지 말고 현실에 직면해서 신중히 결정한다.

---

5) 이숙경(1999), "낙태보고서",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pp238-241.

### **3) 낙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 어떤 병원에서 수술할 것인지 결정한다.
- 자신이 특히 체질이거나 병력이 있다면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다.
- 의사에게 수술의 방법이나 과정을 묻는다.
- 누구와 함께 병원에 갈지 결정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부모님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 받은 후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둔다.
- 수술비용을 마련하고, 회복기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준비한다.

### **4) 낙태 수술을 하고 나서**

-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수술후 1주일의 심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후 2주일의 성관계를 삼가한다.
- 수술이후 병원에서 나온 처방대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
- 수술 후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우울해질 수 있다. 나중에 두고두고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많으므로 자책감에서 벗어나 일단 '힘든 일을 잘 해냈어'라고 자신을 격려한다.

## **IV. 피임, 낙태 교육목표와 방법**

### **1. 피임교육의 목표**

### **2. 낙태교육의 목표**

### **3. 수업방법**

- ① 학생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
- ② 정보제공시에는 비디오자료, OHP, 파워포인트 등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히 활용한다.

③ 피임교육시에는 피임기구 등을 준비해 실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콘돔사용법 등 실습이 가능한 것은 수업시간에 실습교육을 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피임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한다.(출산조절만이 아니라, 재생산으로부터 성의 분리)</li><li>② 피임은 성관계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li><li>③ 구체적인 피임방법 소개와 각 방법의 원리, 문제점 등의 정확한 피임정보를 전달한다.</li><li>④ 피임보급과 실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li><li>⑤ 피임은 여성의 일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li></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낙태의 실태와 여성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li><li>② 우리사회에서 낙태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국가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li><li>③ 낙태 찬반논쟁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연결지어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다.</li><li>④ 실제로 낙태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li><li>⑤ 다시한번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li></ul> |
|---|

## V. 피임, 인공유산 관련 성교육사례

### <사례 1> 고교 남학생 대상 성교육(낙태, 피임)지도사례

(공현옥:부산 급정고 교사)

(출처 :전교조 여성국(2000), [진취적 여교사, 세상을 바꾼다], 2000, 겨울 전국여교사연수 자료집, 93쪽)



단원	낙태, 그리고 피임 ( * 전체 10회 강의 중 제7회 강의안 )	
학습목표	1. 낙태의 비인간성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피임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다. 2. 성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고 준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준비물	여성내부 생식기 그림, 피임도구들	
지도상의 유의점	1.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생각없는 성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같이 예측하고, 성행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단계	교 수 - 학 습 활 동	유의점 및 자료
도입 (5분)  전개 (40분)  정리 (5분)	<p><b>* 질문</b> : 어렸때 자신의 탄생에 관해 가졌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 하였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자. (1-2명 정도 발표)</p> <p><b>* 학습목표 제시</b></p> <p><b>* 낙태의 심각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해 출생하는 아기는 60만명, 낙태되는 아기는 150만 명</li> <li>- 유럽이나 북미보다 3-5배가 낙태 비율이 높다.</li> <li>- 임신 중기 유산율(임신 13-26주)이 증가하고 있다.</li> <li>- 미혼여성이나 젊은 부인(20-24세)이 전체의 1/3을 차지</li> <li>-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불균형을 초래</li> </ul> <p><b>* 낙태의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낙태방법과 낙태가 지닌 폭력성을 설명한다.</li> </ul> <p><b>*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b></p> <p><b>* 피임의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에 대한 외경, 자기 몸에 대한 능동적 통제, 상대에 대한 배려 등으로 현실감 있게 설명</li> </ul> <p><b>* 피임의 원리 및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식 방법 : 질외사정, 배란주기법</li> <li>- 배란 억제 : 경구용 피임약, 난관절제술</li> <li>- 수정 차단 : 콘돔, 살정제, 폐미돔, 정관절제술</li> <li>- 착상 방해 : 자궁내 피임장치</li> </ul> <p><b>* 차시예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시간은 '음란물과 성병'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li> </ul> <p><b>* 과제 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란물과 관계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적어오도록 한다.</li> </ul>	여성 내부 생식기 그림  VD '침묵의 절규'의 내용을 소개해 도 좋다.  피임도 구들

## 피임, 함께 책임집시다.

이 미경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화나 소설 속의 성관계 장면에서 피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하기가 극중의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때로는 숨막힐 정도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는데 피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효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미혼의 성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일상적인 성관계에서 피임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설마 오늘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덜컥 임신이 되고, 이로인한 급격한 인생계획의 변화, 심지어 한·두 번씩의 낙태 경험, 뒤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로는 임신에 대한 공포로 두렵기조차 한 성관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여성들에게 그리 생소하지만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44%가 한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7). 결혼한 여성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피임에 실패해 인공유산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소위 함께 사랑을 나눴던 남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책임을 나눠 갖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피임은 여성의 일로 남겨져 있다. '60-'70년대의 국가의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에서 인구억제를 위한 목표달성의 도구로 여성의 몸이 이용당할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피임방법들 중 질정좌약이나 자궁내 삽입장치, 피임약, 난관수술 등은 다 여성들

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물론 월경주기법이나 점액관찰법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피임은 여자들이 알아서, 그것도 분위기 깨지 않도록 센스 있게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남성 피임법인 콘돔은 일본에서는 피임실천 방법 중 78%를 차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19%선에 그치고 있다. 일단 남성의 성기가 발기가 된 후 착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성감을 저하시킨다는 콘돔의 단점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피임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뜻하고 정겨운 성관계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물론 신뢰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하는 것은 성관계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고, 피임은 성관계의 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 어느 남성도 원치 않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거나, 피임에 소홀한 대가로 상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인공유산을 시키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우기 드라마에서처럼 자기도 모르게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 섬뚱함을 느끼고 싶어하지는 않을거라고 믿는다. 최근 출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고통과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려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봐도, 남성들이 성과 재생산 과정에서의 책임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 가는 것은 그리 먼 길이 아니다.

이제, 피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사실 피임법의 보급은 여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획기적인 일이다. 옛날에는 그저 운명 이려니 하고 생기는대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출산여부와 시기조절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임신에의 불안감 없이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 재생산과 성과의 분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현재의 피임법이 갖는 안전성의 문제와 부작용, 그리고 사용상의

불편함 등은 계속보완하고 개발해가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임의 책임을 남성들도 함께 나누려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이다. 앞으로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 몫을 다 해내고 있는 여성들을 배려해, 적어도 피임은 책임지는 멋진 남성들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가자. 어릴적부터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그리고 여성들의 당당한 요구를 통해!

( ▶ 출처 : 여성신문, 2000년 3월 3일, 제 565호, 여성컬럼 )

## 인공유산, 무엇이 문제인가?

이 미경

우리사회에서 매년 태어나는 아이의 2배 이상인 150만건의 인공유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인공유산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어찌면 우리는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해오고 있었는지 모른다. 더욱이 '60-'70년대에는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초기유산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었다. 주요 선거시 인공유산에 대한 입후보자의 관점과 정책이 유권자들의 지지여부에 주요변수가 되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유산에 대한 찬·반 논쟁마저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태아의 생명을 언제부터로 인식하던간에, 인공유산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의 낙태 반대론자들은 “침묵의 절규”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12주된 태아의 인공유산 실태를 초음파로 찍어서 죽음 앞에 선 태아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면 거의 누구나 인공유산을 무조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주로 태아의 입장에서라면,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첫째, 과연 태아를 무조건 낳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인가? 예를들어 성폭력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실 성폭력피해로 인해 얼마나 임신이 되는지 구체적인 통계자료로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정을 통해서 보면 적지않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의한 임신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피해당시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경험도 모자라, 신이 주신 생명이니 낳아야한다고 강요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존재하고 사생아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몰아버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들의 행복한 삶을 얼마나 보장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오히려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불행을 약속해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생명의 가치는 생활의 질보다 절대적으로 크다는 논리 속에 아이와 엄마, 또 주변인이 겪어야 할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둘째,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선택권보다 우위인가? 태아의 생명권자들은 인공유산이 태아에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이기 때문에 태아의 살권리를 존중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권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임신부로서 인간존엄성은 태아의 생명권에 비해 덜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째, 인공유산은 여성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인가? 인공유산에 관한 논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고결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태아를 ‘감히 없애버리는’ 장본인인 여성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곤 한다. 우리사회에 미혼부는 없고 미혼모 문제만 있듯이, 문제의 임신과정에 함께 했던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더우기 인공유산으로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신체적 피해의 심각성 등은 윤리적 기준에 가려져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골반내 염증, 자궁내 유착증, 자궁경관 무력증, 자궁천공, 불임,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인공유산의 신체적 후유증과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도 인공유산을 결심하게 되는 여성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아선호에 의해 자행되는 태아감별로 인한 인공유산을 과연 이 여성의 비윤리적인 처사라고만 비난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철저히 남성중심적 사회의 희생양으로서 여성이 존재함을 보아야 한다.

네째, 법적으로 인공유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서는 인공유산을 금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나, 모체가 위험할 경우, 그리고 강간, 혈족간의 임신 등에 대해서는 인공유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어떻든 간에 인공유산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혼여성 중 44%가 한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7).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인공유산이 법적으로 전면금지한다면 수많은 여성들은 무면허 의사를 찾아가 음성적인 시술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인한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수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생명의 논리만으로 이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경계하고 여성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성에 관한 바른 인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인공유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 ( ▶ 출처 : 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 2000년 3월호, 여성컬럼 )

< 참고자료 3 > -----

## 낙태 관련법

자료 : [http://cafe5.daum.net/\\_c21\\_/home?grpId=9Wg](http://cafe5.daum.net/_c21_/home?grpId=9Wg)(\*<더 나은 선택-낙태이야기  
> 인터넷카페)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의료법

제19조의 2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신을 진찰 또는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함께 읽어봅시다.

교육인적자원부(2001),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문화.

또하나의 문화(1991), [새로쓰는 사랑 이야기]/[새로쓰는 성 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또하나의 문화(2001), [여성의 몸, 여성의 나이], 또하나의 문화.

이숙경외(2001), “특집, 이제 낙태를 말한다”,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도서출판 이프.

장필화(1999), [여성/몸/성], 또하나의 문화.

캐티콘보이외(1997), 고경하외(공역)(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크리스티안 노스립(1998), 강현주 역(2000), [여성의 몸, 여성의 지체], 한문화.

토머스 라커(1990), 이현정 역(2000), [섹스의 역사], 황금가지.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쓰는 성이야기], 동아일보사.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한국여성학회(2001), [성교육 그 쟁점과 실천], 2001년도 제1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http://cafe5.daum.net/\\_c21\\_/home?grpId=9Wg](http://cafe5.daum.net/_c21_/home?grpId=9Wg)(\* <더 나은 선택-낙태이야기

> 인터넷카페)

<http://www.sangsaeng.org>(\* 상생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http://www.kaws.or.kr/list/mon\\_nol\\_17.htm](http://www.kaws.or.kr/list/mon_nol_17.htm)(\* 한국여성학회 성교육 관련 자료)

<http://www.piim.or.kr>(\*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피임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ppfk.or.kr/dataroom\\_frame.htm](http://www.ppfk.or.kr/dataroom_frame.htm)(\*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자료실 사이트)

<http://www.prolife.or.kr/index.html>(\* 낙태반대운동연합 홈페이지)

\*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계간), / [여성신문](주간)